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뺏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마르 4,32)

사진 : 최순여 미카엘라(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연중 제11주일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17,22~24

화답송 시편 92(91),2~3.13~14.15~16 (◎ 27 참조)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1.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2.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3.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음을 널리 알리리라. ◎

제2독서 코린토 2서 5,6~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르코 4,26~34

영성체송 시편 27(26),4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신앙수기 모집 주보 2500호 기념

* 주 제 '가톨릭부산' 주보와 나의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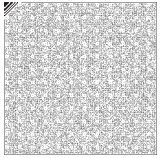
(주보를 계기로 다시 찾은 신앙 이야기나 선교 경험담, 신앙생활의 변화 등 주보와 관련된 다양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 접수 6.30(토) 17:00까지 ■ e-mail 접수 jubo@catb.kr

※ 이메일 제목에 '신앙수기 응모' 표기 /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분량 200자 원고지 8매 (1600자 내외) 이상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복음은 ‘성장의 비유’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 놓으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뿌려진 씨가 성장하는 과정을 씨 뿌린 이는 알지 못하지만, 땅의 생명력으로 결실을 맺게 됨을 말하면서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이지만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는 작고 미약한 씨앗을 시작으로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성장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너무나 작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견주어 생각해 본다면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고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완성되는 하느님 나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두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전해지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비유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알려주고자 하셨을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으나 반대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행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 나라가 임하시길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강 헌 철
펠릭스 신부
광안성당 주임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6.18(월)~19(화)
강헌철 신부(광안성당 주임)

6.20(수)~23(토)
이동현 신부(호계성당 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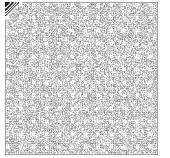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치민 아나운서

6.19(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물론대성당 홍보분과

6.20(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안젤리카 그레고리오 합창단
출연 :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6.20(수) 본당 리포터
출연 : 김계남 베로니카(남산성당)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6.22(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우리 찬양사도 출연 : 서정호 유스티노



제 친정어머니는 살아생전 기도 생활에 매우 열심이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들의 신앙은 부족하기 그지 없었고 때로는 어머니에게 불평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목주알을 굴리며 밤새 기도하기도 하는 제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바치신 기도의 힘 때문인지, 이미 제 곁에는 안 계시지만 기도 안에서 저를 지켜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초상난 집 어머니들이 우는 것보다 더 애절하게 저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라며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에 대하여 회상을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가난한 우리 가정을 책임지셔야 했던 어머

니께서는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자녀들에게 금전적으로 흠족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빈 가슴은 눈물 공간이었으며, 숨어서 몰래 흘린 어머니의 눈물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표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45년 전에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서면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았습니다. 주례 신부님께서 혼인서약 질문을 하셨을 때, “예” 대신 눈물로 응답을 한 기억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터져 나오는 눈물 때문에 어떻게 혼인성사가 끝났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살아가면서 기쁜 일에도 눈물이 나지만 결혼생활과 같이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앞날의 두려움 때문에 눈물이 밀물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면서, 신앙

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3.1)는 주님의 말씀은, 제가 지닌 나약함에 대해 용기와 위안이 됨은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지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 어머니가 우리 몰래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웃음으로 곡식 단 거두리라”(시편 126.5~6)는 주님 말씀은, 엄마로서 흘려야 할 저의 눈물에 대한 주님의 한없는 위로입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는 “영혼의 닦과 같이 안전하고 견고한”(히브 6.19~20) 희망의 말씀이 되어 어려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 장 현 선 엘리사벳

문현성당 • 시인 horyu24@hanmail.net

한처음
교구가
시작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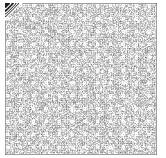
교구 설립 후 10년 동안 교세 성장

6.25 한국전쟁 이후 부산교구의 교세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교구 설립 이후 10년 동안에는 더욱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아래 표의 신자 비율은 50년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기에 신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64년 교세 확대를 위하여 ‘신자배가 운동’을 교구설립 10주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려고 했지만, 1967년까지 목표인 16만 신자로 확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1965년도 7,204명의 신자 증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연도	신자수	증가수	신자비율	연도	신자수	증가수	신자비율
1957	41,095	6,481	1.8	1962	76,398	6,454	1.8
1958	54,799	13,704	1.8	1963	83,238	6,890	2.0
1959	62,011	7,212	1.6	1964	90,299	7,011	2.0
1960	67,061	5,050	1.8	1965	97,503	7,204	2.1
1961	69,944	2,883	1.5	1966	102,309	4,806	2.1

신자 증가에 따라 본당도 늘어났습니다. 교구 설립 당시 본당(현 부산교구 지역에 한정함)은 12개(부산진, 언양, 청학동, 밀양, 대청동, 초량, 동래, 동향, 서대신동, 신선동, 울산, 광안리)였습니다. 10년 만에 15개 본당이 늘어났는데, 연도별로 보면, 삼랑진(1957), 양정(1957), 온천(1958), 구포(1958), 초창(1959), 김해(1959), 서면(1960), 대연(1961), 괴정(1961), 송도(1961), 수정(1962), 화교(1962), 해운대(1963), 동대신동(1964), 물금(1966) 성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더불어 교구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사제 양성’을 추진했는데, 1966년 말 대신학생 51명, 소신학생 57명이 될 정도로 신학생 수가 늘어났고, 10년 동안 새사제도 19명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런 교세의 성장은 부산교구민 전체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다시금 초기 교구민들의 믿음에 따른 열성과 노력이 후손인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본당공동체는 물론 교구 전체의 영적 쇄신이 일어나길 희망합니다.

■ 한건 신부(순교성지사목) jubo@catb.kr



스물다섯 꽃다운 에스텔은 오늘도 두 손을 꼭 쥐며 '주님, 조금만 더 이 세상에 머물게 해 주세요. 그러나 당신이 저를 부르시면 당신께 가겠습니다.'라고 애절한 기도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에스텔은 10년 전만 해도 행복한 가정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없이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부모님을 협박하고 아직 어린 에스텔에게도 욕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어느날 에스텔은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텔의 엄마(51세)는 에스텔을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임시처방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에스텔은 집안에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오던 중 에스텔은 길가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선고가 내려졌고, 설상가상으로 암세포가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에스텔은 자신의 상태를 주위에 알리지 않고 고통을 참으며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에스텔은 결국 지난 3월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 가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한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겠지요.

병원에서는 에스텔에게 남들보다 10배가 넘는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지만 상태는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에스텔은 '항암제 불응하여 보전치료 중'이란 판정을 받아 계속 입원할 수도 퇴원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 담당의는 조심스럽게 호스피스병동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

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다 생각하니 에스텔의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현실은 눈물과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게 해 주고 싶지만 지금까지 밀려 있는 병원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며 퇴원을 해도 7평 남짓의 단칸방에 에스텔을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교구민 여러분! 조금만 더 이 세상에 머물고 싶다는 에스텔의 간절한 기도에 힘을 보태어 주시고 에스텔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아들과 관계가 점점 힘이 들더니 이젠 아예 틀어졌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녀석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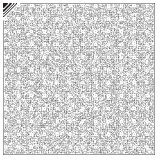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해한다는 사고작용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해는 앞선 이해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그 사람과 사건을 내게 익숙한 세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미 이해가 이루어진 앞뒤 맥락 속에 위치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해는 이렇듯 복잡한 사고과정을 수행하는 인간이성의 주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떠받치는 이 세계가 문제입니다. 내가 나만의 고유한 세계 안에서 사람과 사건을 해석하듯, 그 역시 그만의 고유한 세계 안에서 사람과 사건을 보면서

이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내 자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환경 속에서 내가 '이해와 오해'를 하는 것처럼, 아들 역시 그만의 고유한 생각과 경험, 환경 속에서 '이해와 오해'를 합니다. 이해의 배경이 이렇게 다르기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선 이 배경들의 공유가 많아져야 하는데, 생각, 경험, 환경을 함께 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가족은 이해가 아니라 인정으로 접근하는 대상입니다. 사랑 또한 이해가 아니라 인정과 같은 편입니다.

■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jubo@catb.kr

교구 꾸르실료, 도입 50주년 기념행사 - 데 콜로레스!(de colores)



교구 꾸르실료(지도 : 김경욱 신부, 주간 : 박영찬 요셉) 도입 5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6일(수)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꾸르실리스파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가거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묵주기도,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및 격려사, 성직자 담화(제17대 지도신부 김평겸 신부), 뛰어라(최영두 세례자 요한-남목성

당), 결의문 낭독,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파견미사에서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썩지 않는 양식, 즉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비로소 채워지는 삶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며 신앙인의 본질을 강조했다.

우리 교구는 1968년 6월 6일에 제1차 꾸르실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420차를 실시했다.

형제 9,414명, 자매 10,260명, 성직자 382명, 수도자 454명 (총 20,510명 수료)



가야, 주례성당 예수 성심의 밤 개최



지난 6월 8일(금)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의 날이었다. 이날 모든 사제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특히 가야성당(주임 : 윤명기 신부, 회장 : 손성래 마테오), 주례성당(주임 : 이상일 신부, 회장 : 박신희 체칠리아)에서는 예수 성심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이날을 기념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5월 20일(일) 본당
주임 : 김수원 신부, 회장 : 최태봉 스테파노



6월 3일(일) 본당
주임 : 김평겸 신부, 회장 : 김동순 그레고리오

지내성당, 사도들의 모후 꾸리아 창단



6월 9일(토) 김해 모든이의 어머니(제21) Co. 소속
단장 : 한현우 세례자 요한, 주임 : 맹진학 신부

가톨릭선교마라톤회, 창립 12주년 행사



6월 9일(토) 빨마피정의집
지도 : 윤희동 신부, 회장 : 안병윤 제르바시오



6월 10일(일) 본당 / 주임 : 김대아 신부, 회장 : 임준우 토마스아퀴나스

중고등부, 합동 체육대회



1지구 6월 10일(일) 송도 가정 운동장



3지구 6월 6일(수)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6월 10일(일) 본당
주임 : 구경국 신부, 회장 : 정금섭 안드레아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6.18(월) 10:00(목주기도), 10:30(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629-8760~2(성소국)

7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부산 지역] 7.8(일), 7.22(일) 15:00~18:50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100% 인터넷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부산가정성당 협력업체 모집

분야: 스냅사진, 영상촬영(DVD)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포트폴리오
접수: 7.6(금)까지 교구청 '사무처' 앞으로 우편
접수 / 문의: 629-8775 (면접일 개별통보)

부산가정성당 유급 지원팀 모집

성가대: 성악과 재학생 및 졸업생
오르간 반주: 음대 및 유경험자
제대회, 폐백수모: 유경험자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접수: 7.6(금)까지 교구청 '사무처' 앞으로 우편
접수 / 문의: 629-8775 (면접일 개별통보)

모라성요한성당 은혜의 밤

· 6.27(수) 18:30 / 강사: 강우현 신부(수정마을
성당 주임) - 강의, 미사, 안수 / 문의: 316-1009

기관·제 단체·위원회

지속적인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6.22(금) 11:00 / 대상: 회장 및 지도조장
· 구포성당 / 문의: 466-2290

꾸르실료 참가 신청 접수 및 마감

제409차(은총): 6.21(목)~24(일)
제410차(형제): 7.19(목)~22(일) / 마감: 7.12(목)
제411차(자매): 7.26(목)~29(일) / 마감: 7.12(목)
문의: (055)388-5734, 5733(팩스), 본당 간사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1. 6. 22. 박만춘(아우구스티노) 신부님

해양사목 월미사

· 6.18(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주례: 이균태 신부 / 문의: 464-2707

시각장애인선교회 후원회 미사

· 6.18(월) 12:00 · 선교회 3층 성전
주례: 박성태 신부 / 문의: 464-3909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6.21(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초청강연: 송기인 신부 / 주제: 순교자 영성
문의: 515-0030

부산가톨릭음악협회 후원회 감사미사

· 6.18(월)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례: 임석수 신부 / 연주: 펠레나양상블
문의: 010-8545-6504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6.19(화) 14:00 · 가야성당
성모님께 봉헌식과 성체각복 및 안수
지도: 윤명기 신부 / 문의: 010-8879-2376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모집

· 6.20(수) 19:30 · 망미성당 / 단장: 김종민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
단원 입단 문의: 010-7339-8545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연합 쉼 대피정

· 6.25(월) 09:00~16:0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및 미사 주례: 손삼석 주교
신청비: 3천원 (점심 제공) / 문의: 646-3746

부산성모병원

제12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접수: 6.10(일)~20(수) / 교육: 7.3(화)~5(목)
· 부산성모병원 3층 세미나실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교육 받
을 수 있음(자원봉사는 교육 후 면접을 통해 결정)
교육비: 4만원(교재, 점심식사 포함)
문의: 933-7133, 7137

부산ME 소개모임

부산: 7.2(월) 20:00 남천성당
울산: 7.8(일) 14:30 복산성당
359차 ME주말: 7.13(금)~15(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수시 / 문의: 010-2703-0155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수요 치유기도회
· 6.20(수) 10:00~16:00
버스: 안내카드 참조 / 점심 제공
- 교구 철야기도회
· 6.22(금) 22:30~다음날 04:00
강사: 박희찬 신부(오순절평화의마을)
- 젊은이 성령기도회
· 6.18(월) 19:30 전포성당
· 6.20(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29기 성령묵상회 심화과정 1단계(상담봉사자 교육)
· 7.7(토)~8(일) 17:00 /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급
회비: 10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가톨릭센터 일일영화괴정

· 6.20(수) 13:20~17:00 · 가톨릭소극장
상영작: 모세(더 바이블 시리즈)
내용: 강의와 영화관람 그리고 나눔의 시간
문의: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가톨릭센터 사진교실 프로젝트반

<공소의 4계절을 사진에 옮기다>
개강: 6.27(수) 19:00 최경현 사진갤러리(상상누리)
수강료: 120만원(분납 가능) / 과정: 1년 과정
내용: 영남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연양성당의
공소를 둘러본다 / 문의: 010-3873-0006
(가톨릭센터 사진교실 강사 최경현)

전례꽃꽂이연구회

성지순례 및 회원 단합 야외회
· 6.25(월) 06:30 출발 · 홍주성지(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의: 010-4554-1173, 010-2556-6380

교육·모집·기타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6.20(수) 11:00 · 남천성당 소성당
주례: 이홍기 몬시뇰 / 문의: (055)353-6597

젊은이 마음괴정-기도와 마음 돌봄

· 6.23(토) 14:00~24(일)
·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본원 / 회비: 4만원
대상: 만 40세 이하 미혼남녀 / 문의: 010-4270-3103

양주 올리베타노 수도회 후원미사

· 6.26(화) 14:00 · 성분도 은혜의 집(광안리)
문의: 010-9344-3771

부산교구
공원모지

하늘 공원

가족봉안모 (6위형) 18단 신규분양

▶ 분양 시작일: 6월 18일(월) 09:00
▶ 교적지참 후 현장 방문 시 분양가능합니다.

※ 개방 시간: 09시~17시(연중 무휴)
※ 문의: (055)374-8733(관리사무실)



아흐레 만에 성경 뚝딱 읽기!

장재봉 신부와 함께 하는
'8박 9일 성경 통독 피정'

에서 가능합니다

- #일시: 8월 3일(금)~11일(토)
- #장소: 양산 정하상 바오로 명성관
- #문의: 선교사목국 (051) 629-8720~2

혼인미사 예약 및 예식 안내

혼인미사 예약 접수: 9.2(일) 09시부터
혼인미사 예식 시작: 9.8(토) 11시부터

토, 일, 공휴일: 11시, 13시, 15시, 17시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주)씨피여행사

1. 7/26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12일 3석
2. 8/6 나가사키 순례 4일 FEERY 70만원
3. 10/2 동유럽 순례 12일 LH 405만원
4. 10/29 서유럽, 발칸16일 LH 485만원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

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

도로연수

전문강사: 김 정 근 (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오두종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오두종(오한)

805-0200

카톡상담 ID: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타해 맞은편 우리은행 5층

준재활요양병원

재활중점/노인요양/외래진료
(통증치료, 신경·정형외과)

병원장 최준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372(안락동)

50년 전통 명신당

묵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목(바오로) 김영민(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범일점 맞은편

눈시원안과

이현석(분도)
전. 굿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링크
631-6622
상공회의소 옆 이샘병원 3층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경우(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서울외과의원

치질, 정맥류, 외상,
피부종양, 탈장 수술전문

의학박사. 전문의 박문규(라우렌시오)
화인클리닉 5층 704-7273

제주도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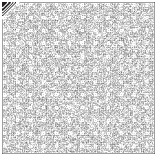
(064)758-6476

010-4566-6476

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외과 이상열(베드로)
516-0888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예수성심의 우리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심미사

· 6. 22(금) 14:00~17:00(16:00 미사)
· 성분도 은혜의 집 / 강의: 김대선 신부
·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문의: (02)379-8091(예수성심전교수도회)

향심기도 하루피정

· 6. 24(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강사: 왕영수 신부
신청: 6.17(일)까지 / 참여비: 1만원(중식 포함)
문의: (052)239-1249, 010-5488-1239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예수성심월피정

· 7. 29, 8. 26, 9. 30, 10. 28, 11. 25, 12. 23
13:30~18:00 주일미사 봉헌 / 참가비: 2만원
· 성심영성센터 / 문의: 581-3114
주제: 심리와 영성 / 강사: 신현철 신부
대상: 전신자 혹은 비신자 개인, 가족

살레시오 무료특강

주제: 세상을 껴안는 힘, 인성
· 6. 26(화) 10:00~11:00 / 접수: 6. 23(토)까지
대상: 관심 있는 누구나/미디북교실학부모
문의: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집, 남천동)

성바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치유>

· 9월부터 10주간 · 가톨릭센터 1층 성바로 서원
월요일 오전 10:00~12:00, 수요일 저녁 19:00~21:30
대상: 30대~60대 남, 여 / 문의: 521-8898

배상섭 신부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 8. 6(월)~9(목) · 나가사키 순례
· 8. 16(목)~24(금) · 이스라엘 순례
부산 출발 / 문의: 010-3837-6434

성경 기록한 독서 피정

· 6. 22~24, 9. 14~16, 10. 19~21, 11. 16~18,
12. 14~16 금 14:00~일 14:00 / 강의: 유덕현 신부
· 경남 고성 올리베라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피정비: 15만원(2박 3일) / 문의: 010-2816-1986

도미니코 발란마날 신부 초청 성령쇄신 대피정

· 6. 23(토) 09:00~17:30
· 창원문성대학교 문성체육관
미사: 안명옥 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강사: 도미니코 발란마날 신부
준비물: 도시락, 물, 미사준비 / 문의: 010-9664-1813(창원지구 성령쇄신 봉사회)

투스평포교베네딕도회 베네딕도 살이피정

· 7. 4(수)~8(일) 13:00 · 대구 수녀원
대상: 수도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35세 이하 자매
문의: 010-8519-3431

젊은이 침묵피정 <침묵의 기쁨>

· 7. 7(토)~8(일) / 문의: 010-6806-7665
· 작은자매관상산교회수녀원(진주본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남녀(신청순 15명, 무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7.13~15, 8.3~5 시작 17:30
7.16~20, 7.16~24, 8.13~17, 8.20~28 시작 14:00
영적식별: 7.16~24 시작 14:00
에니어그램 여정(강사: Sr. 박정자 외 2명)
: 기본1, 2과정 6. 22~24 시작 15:00, 심화과정
6. 30~7. 1 시작 14:30

지리산 피아골 피정집 여름휴가 피정

1차: 7. 27(금)~29(일) / 2차: 7. 30(월)~8. 1(수)
3차: 8. 3(금)~5(일) / 4차: 8. 6(월)~8(수)
6차: 8. 13(월)~15(수)
대상: 누구나(1인 혹은 가족, 친구, 단체 등)
참가비: 성인 15만원(2인 1실 기준)
미취학아동 무료, 초·중·고등학생 7만 5천원
문의: (061)782-5004, www.piagol-732.net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

· 6. 30(토) 14:00 / 문의: (054)338-0530
대상: 진학희망 학부모(초6~중2)

문산 예수마음피정외집 피정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피정: 8. 18(토)~19(일) / 9. 1(토)~2(일)
3박4일피정: 7. 5(목)~8(일) / 8. 2(목)~5(일)
8박9일피정: 7. 11(수)~19(목) / 8. 7(화)~15(수)
청년피정: 7. 28(토)~31(화), 대상: 35세 미만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신구약성경통독: 7. 14(토)~22(일)
효소단식피정: 7. 26(목)~29(일), 8. 2(목)~5(일)
문의: 010-3340-0201, 010-4993-4394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 7. 14(토) 11:00~15(일) 16:00
· 음성꽃동네사랑의 영성원 / 회비: 5만원
대상: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문의: 010-5490-5345(어린이 동반금지)

제7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피정

· 7. 27(금)~29(일) · 의왕시 아론의 집
주제: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무엇을 찾느냐(요한 1:38)
강사: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전홍식 신부,
두현자 회장 / 주최: 미국 중남부 성령쇄신 봉사
자 협의회, 하찬사
문의: 010-5333-5583, 010-3008-2981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심화피정

· 8. 22(수)~26(일) · 분도 명상의집
주제: 스승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지도: 허성준 신부, 이경희 수녀
회비: 34만원(40명 1실)
문의: 010-3827-0092(봉사자)

계간 『부산가톨릭문학』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

■ 접수 마감 및 보낼 곳
가을호: 7.10(화), 겨울호: 10.10(수)
보낼 곳: rose0624@hanmail.net(편집장 김새록)
문의: 010-9365-037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litera.catb.kr)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예수회	6.23(토) 15:30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3324-0731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무료특강
암호화폐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올바른 이해

▶ 교육: 6.23(토) 13:00~17:00
▶ 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미카엘관 210호
▶ 접수: 6.18(월)~22(금), 전화접수만 가능
<선착순 30명 모집>

문의: 510-0951~3, edu.cup.ac.kr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최신 내시경초음파 도입

- 일반 내시경으로 관찰 불가능한 곳을 검사
- 위·대장 점막하 종양, 담낭양종, 췌장질환 정밀진단
- 식도암·위암·위 림프종 등 치료전 진행도 파악

문의: 461-2335~6 (소화기내과)

가톨릭선원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문화공연 아름다운세상 74
카메라타 합창단과 함께하는 예수성심성월음악회
‘르네상스와 바로크 성음악’

일시: 6.25(월) 19:30 연암성당 성전 “무료입장”
프로그램 이해를 돕기 위해 연주전 해설이 18:30부터 진행됩니다.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수맥과 건강

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해도 효과가 못보시는분, 문의 환영

사무실 517-3233
서순복(말바) 010-3862-6834

동의료원 무릎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 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

인성심리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 교육청특수교육치료 제공센터)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대상: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612-5611 insungtherapy.modoo.at
남천동 부산은행(광남지점) 3층

해충 방역 소독
악취완전제거

허정희(토마스)
010-9689-8119
(NAVER: 바이빅스)

이명·난청

이제 스마트폰으로
관리하세요
상담문의. 고 두 리 (안엘라)
010-3569-2692

SM수맥흡침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신문광고 중
주보 지참 교우 우대
1588-5335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임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라파엘여행사

8/15 나가사키 4일 999,000원 9/2 949,000원
9/2, 10/14 베트남 성모발원지 5일 129만원
9/4 이태리 일주 11일 349만원
9/14 산티아고 도보순례 13일 409만원
10/2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59/259만원)
성지순례 (02)778-8565

부산최초제작사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기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시 수리
김 무 나 (글라리아)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도 4, 6번 출구(3층, 빨간색 간판)